



식품기업
K뷰티로
새 활로 모색
L1

metro®

Life

한미약품
비만약 판 바꾼다
근육보존 승부수
L2



교실 넘어 장애인 일터까지… “느린 걸음에 바퀴를 겁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특수교육 교재 출판사 '모두efe'
박연지 공동대표

거북이는 느리다. 그런데 이 출판사의 거북이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특수교육 교재 출판사 '모두efe'는 느린 걸음을 타하지도 재촉하지도 않는다. 대신 바퀴를 달아준다.

박연지 모두efe 공동대표는 “거북이도 롤러스케이트를 타면 빨리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롤러스케이트가 있으면 더 빨리 가고 트램펄린이 있으면 허들도 넘을 수 있듯, 장애 학생들에게는 이 책이 그런 도구라는 뜻이다. 아이를 다그치는 대신 아이가 자기 속도로 더 멀리 가고 더 높이 뛰도록 받쳐준다는 것이다.

그는 느린 친구를 거북이로 표현하는 것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라 기발한 아이디어는 아니라며 웃었다. 다만 지난 7월 열린 오티즘엑스포(자폐·발달장애 전문박람회)에서 거북이 그림을 보고 “좋다”며 말을 건넌 이들 중에는 특수교육 현장 밖의 가족과 지인이 많았다고 한다.

모두efe는 '모두를 위한 교육(Edu For Everyone)'을 내건 출판사다. 특수교사였던 박연지 대표와 박해인 대표, 두 공동대표가 2023년 함께 문을 열었다. 그해 2월 임용 교재로 출판을 시작했고 11월부터 특수교육 교재를 냈다. 박해인 대표는 특수교사 임용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특수교육 교재는 3만4000부 넘게 팔렸다. 달력을 포함해 총 21권을 냈고, 정판 1권과 품절 중인 달력 1권을 뺀 19권이 판매 중이다.

◆“우리 반에서만 쓰이는 게 너무 아까웠다”… 교실의 활동지가 책으로

박연지 대표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로 6년을 일했다. 특수학급은 한 반에 보통 6명 안팎인데 발달장애 학생들은 수준이 저마다 달라 교재 하나로 수업하기 어렵다. 잘하는 학생은 교재를 그대로 쓰고, 다른 학생은 글씨 쓰기를 그림이나 색칠로 바꿔줘야 했다. 그렇게 퇴근 뒤에도 활동지를 만들었고 자료는 계속 쌓였다.

박연지 대표는 “우리 반에는 글씨를 못 쓰는 아이가 한 명이지만 전국엔 굉장히 많다”며 “우리 반에서만 쓰이는 게 너무 아까웠다”고 했다. 시중 교재는 수준이 금방 올라간다는 점도 한계였다. 그는 “저희 아이들은 한 자릿수 덧셈을 한 학기 동안 배우기도 한다”며 “그림과 활동을 곁들여 그만큼 천천히 가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출판은 임용 교재로 먼저 익혔다. 두 대표는 성인 대상 임용 시험 교재를 함께 쓰며 출판의 흐름을 알게 됐다. 박해인 대표에 따르면 모두efe를 시작할 때도 아이들 책부터 내지 않고, 임용책 중 값이 싼 책으로 제작 전 과정을 먼저 연습했다. 임용책 판매 수익은 아이들 책을 만드는 밑천이 됐다.

교재 한 권에 드는 품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박연지 대표가 저자로 참여한 성교육 책에는 변기물 내리는 방식을 알려주는 화장실 단원이 있다.



모두efe를 함께 이끄는 박해인(왼쪽), 박연지 공동대표가 '차근차근 생활수학' 등 교재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고있는 모두efe의 캐릭터 거북이

/김아영 기자, 모두efe

특수교사 출신이 만든 특수교육 교재
그림·활동 곁들여 천천히 가는 책 제작
스티커 붙이기, 오리기 등 집중력 높여

생활수학, 문장독해 등 다양한 곳에 활용
화폐 교재, 장애인 일터까지 쓰임 넓어져
통합학급 교사 위한 탁상달력도 '완판'

잘 팔리는 책과 필요한 책 균형 맞추는 것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팝업북 제작 논의
해외 진출 넘어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

그는 레버와 버튼 종류가 다양해 지하철과 백화점 화장실을 돌며 사진을 모았다. 선긋기 워크북 활동지 123장은 저자들이 500장 가까이 만든 끝에 추진 것이다. 박연지 대표는 “교재를 만든다고 하면 아이디어만 나열하면 될 줄 알았는데 손이 가는 게 정말 많았다”고 말했다.

스티커 붙이기와 오리기 같은 조작활동이 많은 것도 교실 경험에서 나왔다. 쓰기만 이어지면 아이들의 주의 집중이 흐려지는데, 스티커 붙이거나 오리기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직접 조작하며 배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박연지 대표는 “한글을 몰라도 화폐는 배울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책이 나온 뒤 가장 좋았던 장면은 강의하러 간 학교의 책장에 모두efe 책이 자연스럽게 꽂혀 있던 모습이다. 아이들이 푼 흔적을 볼 때도 뿌듯하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일반 교사에게도…특수교육 밖으로 번진 책

쓰임새는 처음 계획보다 멀리 갔다. 대표 사례는 모두efe의 베스트셀러인 '차근차근 생활수학' 시리즈다. '화폐 계산하기'와 '시계 보기'로 이뤄진 이 시리즈는 어린이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만들었지만, 유아부터 성인까지 쓰이고 장애인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수업 교재로 쓰인다. '화폐 계산하기'는 지폐편, 동전편, 지폐와 동전편이 있고 가장 먼저 나온 지폐편은 5000부 넘게 팔렸다. 박해인 대표는 화폐는 누구에게나 구분할 수 있게



소근육 발달을 위한 '동형따라 색칠 오리기' 시리즈.

르쳐야 하는 개념이라 성인 대상 수업에서도 쓰이는 것 같다고 했다.

달력에서는 그 폭이 한 번 더 넓어졌다. 모두efe는 해마다 11월에 통합학급 교사를 위한 탁상달력을 낸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학급을 맡은 일반 교사가 업무용으로 쓸 수 있도록 상담일지와 출결 관리 공간을 넣었고 뒤쪽에는 달마다 할 일과 알아야 할 행동 요령을 매뉴얼로 담았다.

처음 찍은 600부는 2주 만에 다 나갔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교육청이 교사 연수에 활용하려고 2026년 달력 2000부를 주문했다. 박해인 대표는 특수교사들만 보는 출판사가 만든 책을 교육청이 일반 교사들에게까지 돌렸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다. 특수교육 현장을 위해 만든 책이 일반 교사에게까지 전해진 셈이다.

책이 가장 많이 닿는 곳은 학교다. 학교에서는 학기 초인 3월과 9월, 가정에서는 방학이 시작될 때 책을 많이 산다.

오는 11월에는 한글을 떼는 아이들을 위한 한문장 독해집도 나온다. '라면을 먹는다' 같은 짧은 문장에서 시작해 권수가 올라갈수록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며 5권까지 낼 계획이다. 박연지 대표는 노인 인지 활동이나 외국인 한글 학습에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책 밖으로 향한 다음 걸음…팝업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잇는 구상

모든 책이 잘 팔리는 것은 아니다. 박연지 대표

가 가장 힘들었던 때는 1년 차에 책이 생각만큼 팔리지 않았을 때다. 판매량이 곧 책의 성적표처럼 느껴졌고 원고에 공을 들인 작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그때 지인에게서 좋은 책이라고 꼭 많이 팔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책들을 다시 보니 안 팔리는 책은 대상이 좁았다. 화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쓰지만, 오리기나 기초 학습 책은 초등 저학년 위주라 판매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박연지 대표는 “그래도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책”이라며 “적게 팔리더라도 꼭 필요한 책은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지금은 잘 팔리는 책과 필요한 책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첫 오프라인 행사였던 오티즘엑스포는 교사에게 주로 알려졌던 모두efe가 학부모와 치료사를 직접 만난 자리였다. '어떤 책이 나왔으면 좋겠느냐'는 메모지 이벤트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범죄와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사용을 쉽게 풀어 쓴 설명서 같은 주제가 나왔다.

다음 걸음은 책 밖으로 향한다. 오티즘엑스포에서 만난 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팝업북 제작을 논의하고 있다. 이 사업장에는 팝업북을 조립하는 직무가 있다. 아직 한 차례 미팅을 했을 뿐이고 내년엔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단계다. 박연지 대표는 “우리 팝업북을 만들면 그분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팝업북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박해인 대표는 규모가 커지면 책을 번역해 해외 시장에 내놓는 일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화폐와 시계 같은 주제는 세계 어디서나 통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연지 대표는 모두efe를 출판사에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화폐, 성교육, 소근육 분야 저자들이 강의하고 학부 모도 들을 수 있는 행사를 여는 구상도 있다.

새벽이 하루를 열듯, 책 한 권이 아이의 하루를 연다. 장애 학생에게 바퀴를 달아준 책은 이제 일반 교사의 책상으로, 성인이 일하는 장애인 일터로 번지고 있다. 새로운 지평은 그렇게 한 장씩 넓어진다.

/김아영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펜싱 전설 구본길, 25년 선수 생활 은퇴…올림픽 금 4·아시아게임 금 /사진 뉴시스
▲‘태극마크 반납 예정’ 쇼트트랙 최민정, 월드컵 1차 대회 1000m 금

▲한국, 금 29개·종합 5위로 목표 초과 달성…탁구·사이클이 건인
▲‘첫 우승 도전’ 김보미, LPBA 5차 투어 결승서 ‘퀸’ 임정숙 상대

▲토티엄, 첼시 원정서 8년 7개월 만에 승전고…시즌 첫 연승 달성
▲노벨문학상 타면 책 팔린다…서점가 달구는 ‘특수효과’